

# 가동률 저하로 경영난 가중되는 방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는 방위산업체의 경영성과를 종합적, 통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설비자본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경영개선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방위산업 주요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95년말을 기준으로한 방위산업의 일반 현황, 방위산업체의 경영 실적, 투자자본에 의한 설비자본 이용실태 등을 분석, 수록하였는데 방산부문 가동률이 56%에 그치는 등 방산의 어려운 실정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本誌에서는 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다.

「편집자註」

## '95년 방위산업의 일반현황 분석

### • 방산 국내 시장

방위산업체의 방산부문 총매출액은 '95년 기준으로 약 2조 5,48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방산업체의 총매출액 66조 9,705억원과 비교해 볼때 방산전업률은 약 3.80%를 점하고 있는 정도이어서 '90년 5.75%이래 방산업체의 총매출액중 방산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국방비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방위력 개선비의 배분율이 아래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음에 기인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방산전업률이 90%인 방산업체는 '94년 기준으로 6개업체였으나 '95년은 3개업체로 줄어들었고, '95년말 기준으로 삼성항공이 5,673억원, 현대정공이 2,644억원, (주)풍산이 1,854억원 등의 방산매출액을 시현하고 있어 상위 5개사가 52%, 상위 11개사가 80%의 매출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매출액 상위 방산업체는 회사 전체 매출액에 대한 방산매출액의 전업률과 가동률이 낮아 방산업체로 볼때에는 경영수지에 큰 도움을 주기보다 타격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방예산의 배분비율 추세

(단위 : %)

구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운영유지비	65.2	67.0	68.4	69.8	70.9	71.7	71.9
방위력개선비	34.8	33.0	31.6	30.2	29.1	28.3	28.1

주) 1997년은 예산(안)을 기준한 것임.

무기체계 분야별 시장규모와 조달실적면에서의 특성을 보면 국내시장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조달품목은 총포·탄약·기동 등의 재래식 무기체계분야인데 '95년 기준으로 50%에서 65% 수준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달물량이 연도별로 크게 변동하여 방산업체의 안정적인 설비운영 및 인력관리 그리고 설비이용률 유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 방산 수출 시장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수출은 70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95년에는 연간 7,698만불을 수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중 방산물자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약 0.06%로 선진국의 2.7%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수출보다 기술 이전이 용이한 절충교역(offset)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술패권주의로 핵심기술의 이전을 방지하려는 선진국의 정책으로 인해 수출신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방위산업의 인적·물적자원 현황

국방연구인력은 국과연과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연구인력으로 이해되는데, 방위산업체의 국방연구개발 연구인력은 전체 종업원에 대한 방산종업원의 구성비에 의할 경우 '95년 현재 약 986명 수준에 머물고 있고, 방산분야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는 약 3만명 정도이다.

물적자산 현황을 살펴보면 설비투자 규모와 설비투자액은 '94년까지 방산매출액에 대

“

수출품목의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수출전략품목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내조달후 잉여분의 수출보다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수출지향적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

하여 매년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었다.

하지만 '95년에 접어들어 항공업종의 고정익 및 회전익 시설투자가 거의 완료되어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방산기술의 급격한 기술심화 및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요구로 인한 설비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수부문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 방위산업의 경영현황 분석

### • 재무구조와 손익실적

방산업체는 매출의 증가와 설비투자의 감소 및 차입금의 단기적인 증가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에 있다.

유동비율은 증가추세에 있고, 부채비율은 시설투자 위축에 따른 타인자본 의존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줄어들고 있다.

또한 방산업체의 손익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이 8.5%로 전년보다 증가했고, 금융비용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중소 방산업체는 아직도 부담이 크며 수익성은 제조업보다 호조된 상태이지만 방산부문은 열악한 실정이다.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부문은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이 P.50의 표에서와 같이 전

손익계산서

(단위 : 억, %)

구분	방산업체		방산부문		제조업(평균)
	'94년	'95년	'94년	'95년	'95년
매출액	516,287	669,740	22,011	25,480	-
경상이익	25,691 (5.0)	56,591 (8.5)	-153 (-0.7)	-549 (-2.2)	- (3.6)

설비이용률 변동 추이

(단위 : %)

구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회사전체	66.6	63.3	61.8	64.2	69.3	74.0
방산부문	55.6	56.9	59.8	54.2	56.1	56.0

년보다 더욱 악화된 -2.2% 수준이었다.

• 설비자본 이용실태 분석

적정매출액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방산업체의 회사전체 가동률 수준은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74.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순수하게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부문의 '95년 가동률은 '94년 수준인 56.0%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95년말 기준 방산업체 전체에 대한 설비투자액은 12조 2천7억원 수준인데 이중 방산부문이 4.3%를 차지하고 있다.

결론 및 건의

'95년중 방산업체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회사전체의 경우 매출성장세는 제조업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며,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수익성 및 생산성이 호전되는 등 업체에 대한 경영성과는 전반적으로 '94년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산부문은 매출액이 다소 성장하였지만 수익성은 더욱 악화된 상태이고, 지

속적인 설비투자로 인하여 생산성 또한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정비에 대한 추가 원가부담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방위산업체 경영분석을 종합분석한 결과 방산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애로사항이 도출되어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다음과 같이 제기되었다.

• 적정가동률 확보를 위한 방산업체 경영 수지 개선

'95년 56% 수준의 가동률을 최소 손익분기점 이상의 생산물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내개발, 공급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매를 지양하고, 현재의 설비를 보완하여 방위산업과 민수산업 제품의 병행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기체계별 장기 획득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이를 전문생산업체의 장기설비투자계획과 연계시켜 생산소요물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산·학·연 교류 활성화

연구개발 투자비를 선진국 수준인 국방비의 7~12%까지 확대하여 첨단 공용기술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산업기술과 첨단무기생산 기술의 연계로 독자적인 정밀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나 기업연구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산학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 업체주도 연구개발체계 조기정착 및 확대유도

선진 첨단기술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민·방산 공용기술(Dual-Use Technology)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체계를 정부주도체계에서 업체 주도로 변환하고 지속적인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업체의 개발장비를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해야 하며, 연구개발 계약제도를 개선하여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감안한 충분한 원가 보상과 연구개발 성공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 방산수출지원제도의 강화

방산제품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수출품목의 확대, 절충교역의 확대, 수출관련 제도의 개선, 그리고 수출지원활동의 강화 등이 체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첫째, 수출품목의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수출전략품목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내조달후 잉여분의 수출보다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수출지향적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대미동의 품목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한·미 방산협력체 기능 강화를 통한 기술료 효율을 완화하고, 단순 유지부품의 수출 시에는 대미동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95년 56% 수준의 가동률을 최소 손익분기점 이상의 생산물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내개발, 공급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매를 지양하고, 현재의 설비를 보완하여 방위산업과 민수산업 제품의 병행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기체계별 장기 획득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이를 전문생산업체의 장기설비 투자계획과 연계시켜 생산소요물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절충교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절충교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응수출 상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절충교역의 방법은 공동생산, 면허생산 그리고 구상 무역 등으로 다양화하여 교역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수출관련 제도중에서는 수출금융 지원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방위산업육성기금을 확대하여 수출지원 별도재원을 설치하고, 수출입은행의 대출대상에 방산품목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또한, 수출완료품에 대한 추가 수주시나 절충교역에 의한 수출허가시 수출승인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방산제품의 해외 홍보 활동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관련 업체 및 기관과 원활한 협조를 통해 보다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장개척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해외 방산전시회 출품이나 참관활동도 실효성 있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防**